

# 국외출장 결과보고서

- 키리바시, 피지 -

「글로벌 해양수산거점 연구협력사업」

2019. 5. 8

〈출장자〉

수산연구본부 조정희 본부장  
해양수산ODA센터 한덕훈 전문연구원

## 1. 출장목적

- 해외수산자원의 안정적 확보 및 국내기업의 해외진출 기반구축을 위하여 해양수산 ODA 규모는 확대 중에 있음\*

\* 해양수산부 ODA 예산규모(억) : ('06) 2 → ('14) 27 → ('16) 29 → ('17) 56 → ('18) 91.2 → ('19) 104.7

- 그러나 우리나라 조업선사의 어획쿼터 확보 등 조업이익에 대한 지원 측면을 고려하였을 때 우리나라의 이해관계가 큰 연안국에 대한 ODA사업은 미흡한 실정임
- 따라서 키리바시 등 우리 선사의 이해가 큰 국가의 현지 교육생을 시범적으로 초청하여 교육하고, 우리 선사의 국제옵서버로 이들을 활용할 수 있는 구체적 ODA사업추진이 필요함
  - 장기적으로는, 중서부태평양수산위원회(WCPFC) 및 국제옵서버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FFA(Pacific Islands Forum Fisheries Agency)\*, SPC(Secretariat of the Pacific Community)와 연결하여 국제기구를 통한 다자원조사업 발굴에 기여하는 방안을 추진 (이 경우 해양수산부 다자성양자 무상원조 방식으로 추진)
    - \* FFA: 남태평양어업회의기구로서 남태평양수역의 어업관리정책을 지원하고, 수산자원에 대한 지속적 이용을 위해 1979년 설립된 기구로 호주, 피지, 키리바시 등 총 17개국 참여 중. 솔로몬 호니아라에 사무국 설치, 불법어업, 해양수산 교류협력, 중서부태평양참치 자원관리에 주요 역할 담당
- 아울러 키리바시, SPC 등 남태평양 현지의 해양수산 ODA 수요조사도 병행하여 향후 현지 수요를 반영한 개발협력사업의 발굴과 추진이 가능하도록 함
  - 이를 통해 향후 원양산업계 지원, 새로운 일자리 창출, 수원국의 수요를 반영한 신규 사업의 발굴, 현지 타당성 조사 효율성 증대 등 향후 해양수산 분야 개발 협력 사업의 효율화 및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 2. 출장지

- 키리바시, 피지

### 3. 출장자 및 출장기간

출장자 및 직급	소속	출장기간	비고
조정희 선임연구위원	수산연구본부/ 해양수산ODA센터	2019.4.14(일) ~ 4.19(금) 4박6일 (기내1박)	
한덕훈 전문연구원	해양수산ODA센터	2019.4.10(수) ~ 4.19(금) 8박10일 (기내1박)	

### 4. 출장일정 및 세부내용

일자	방문일정	내용	비고
4.10(수)	선발대(한덕훈) 출국	◦ 부산-인천-브리스번	대한항공
4.11(목)	키리바시	◦ 브리스번-키리바시	나우루항공
4.12(금)	키리바시	◦ 포럼 개최 준비 사전점검 ◦ 키리바시 수산부 관계자 협의	
4.13(토)	키리바시	◦ 포럼 개최 준비	
4.14(일)	본진(조정희) 출국	◦ 부산-인천-피지 ◦ 포럼 개최 준비(선발대)	대한항공
4.15(월)	피지/키리바시	◦ 본진 피지도착/자문회의(주피지대사관, 피지코이카사무소장, 명예수산관 등) ◦ 포럼 개최 준비 및 키리바시 유관기관 준비 협의(선발대)	
4.16(화)	본진 이동	◦ 피지-키리바시 이동	나우루항공
4.17(수)	키리바시	◦ 한-키리바시 해양수산 전문가포럼 개최	
4.18(목)	이동	◦ 키리바시-피지 난디 ◦ 마무리 협의(대표단)	피지항공
4.19(금)	귀국	◦ 피지 난디-인천-부산	대한항공

## □ 행사개요

- 행사명 : 2019년도 한-키리바시 해양수산 전문가포럼 (Kiribati-Korea Oceans and Fisheries Experts Forum 2019)
- 주 제 : 국제옵서버 양성프로그램 관련 한국과 키리바시의 협력방안(Cooperative Implications on International Observer Training Program between Kiribati and Korea)
- 일시 및 장소 : 2019년 4월 17일, 키리바시공화국 세미나실
- 추진방향
  - 이번 “한-키리바시 해양수산 전문가포럼” 은 한국과 키리바시 해양수산분야 전문가를 초청하여 국제옵서버 교육훈련과 관련하여 협업 가능성을 협의하는 발표 및 토론 방식으로 키리바시 현지에서 진행함
  - 또한 해양수산부/원양산업협회의 수산인프라구축지원사업 일환으로 추진되는 키리바시 물자전달식 및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가 진행하고 있는 무상원조사업 소개와 같이 진행하여 해양수산 ODA분야에서 한국의 노력을 키리바시에 전달하고 협력사업 발굴 촉진함
  - 4월15일(월요일)에는 피지 난디 소피텔에서 현지 대사관, 코이카사무소, 한국 해양과학기술원 피지사무소장, 피지명예수산물관과 함께 ‘남태평양 ODA 유관 기관 자문회의’ 도 개최하여 협력사업 수요 및 방향도 조사함
- 총 참석 인원: 약 50여명

## □ 주최 및 주관

- 주최 및 주관: 한국해양수산개발원
- 후 원 : 키리바시 수산해양자원개발부(Ministry of Fisheries and Marine Resources Development: MFMRD, Republic of Kiribati), 키리바시 선원학교(Marine Training Center: MTC), 한국 해양수산부, 주피지대한민국대사관, 한국원양산업협회, 해외수산협력센터,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 선박플랜트해양연구소, 태평양공동체사무국(Secretariat of the Pacific Community: SPC), 남태평양대학교(University of the South Pacific: USP) 등

□ 국문 프로그램

시간		프로그램		
<b>2019년도 한-키리바시 해양수산 전문가포럼</b>				
<b>등록 및 개회식</b>				
9:30~10:00	30'	등 록		
10:00~10:15	15'	개회사 : 조정희 본부장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환영사 : 아그네스 이팅 수산차관 (키리바시 수산해양자원개발부)		
		축사: 조신희 대사 (주피지대한민국대사관)		
10:15~10:25	10'	전체 기념 촬영 및 휴식		
<b>메인 세션</b>				
10:25~12:30	125'	<b>주제발표 1 : 한국 해양수산 ODA현황 및 KMI 국제협력사업 추진방향</b> 한덕훈 박사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해양수산ODA센터
		<b>주제발표 2 : 한국의 국제옵서버양성교육과 협력가능성</b> 황선재 실장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
		<b>주제발표 3 : 키리바시의 해양수산업 현황과 협력방안</b> 티타 에리카테, 수석 자문관		키리바시 수산자원개발부
		<b>주제발표 4 : 태평양 지역 옵서버프로그램 훈련 및 인증 기준</b> 티모티 제임스 파크, 옵서버프로그램 담당관		태평양공동체사무국
		<b>주제발표 5 : 키리바시의 지속가능 개발목표달성을 위한 해수온도차 발전시스템 활용과 지속가능한 해수자원이용협회 소개</b> 김현주 박사		선박해양플랜트 연구소
		<b>주제발표 6 : 태평양 연안 해양수산 연구협력 방안</b> 조엘리 베이타야키 교수, 한-남태평양 수산포럼 공동의장		남태평양 대학교
12:30~14:00	90'	점심식사 (피마랏지 레스토랑)		
<b>전문가 토론</b>				
14:00~15:30	90'	<b>공동좌장 :</b> 조정희 수산연구본부장(한국해양수산개발원)/조엘리베이타야키 교수(USP) <b>토론자 :</b> 토마스 루아이어 수산부 국장 (키리바시 수산자원개발부) 아케타 타양아 어업면허국 국장 (키리바시 수산자원개발부) 리탕 우바이토이 수산학장 (키리바시 선원학교) 텐타우 테이카케 수석수산자문관 (키리바시 선원학교) 김현태 이사 (한국원양산업협회) 김성철 과장 (신라교역) 임소희 대리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		
15:30~16:00	30'	키리바시 물자전달식 (해양수산부, 한국원양산업협회)		
<b>폐회</b>				

□ 발표자 및 발표 주제

발표자		발표 주제
1	한덕훈 박사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해양수산ODA센터)	한국 해양수산 ODA현황 및 KMI 국제협력사업 추진방향 Status of Korean Oceans and Fisheries ODA and Directions for KMI International Cooperation
2	황선재 실장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	한국의 국제옵서버양성교육과 협력가능성 Korean International Observer Program and its Implications
3	Teeta Erikate 수석자문관 (키리바시 수산해양자원개발부)	키리바시의 해양수산업 현황과 협력방안 Status and Implications of Kiribati's Fisheries Industry & Possibility of Cooperation
4	Timothy James Park 옵서버프로그램 담당관 (태평양공동체사무국)	태평양 지역 옵서버프로그램 훈련 및 인증 기준 Pacific Island Regional Fisheries Observer (PIRFO) Training and Accreditation Standards
5	김현주 박사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키리바시의 지속가능 개발목표달성을 위한 해수온도차 발전시스템 활용과 지속가능한 해수자원 이용 아카데미 소개 OTEC Application for Implementing the SDGs in Kiribati with Introduction of SSUA(Sustainable Seawater Utilization Academy)
6	Joeli Veitayaki 교수/ 한-남태평양 수산포럼 공동의장 (남태평양 대학교)	태평양 연안 해양수산 연구협력 방안 Cooperation and Collaboration in Ocean Fisheries Research between Korea and Pacific Islands

## □ 발표 주요내용

1	<p>한덕훈 박사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해양수산ODA센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아프리카 및 태평양 개발도상국을 대상으로 한 한국정부와 해양수산개발원에서 추진한 주요한 국제협력 사업을 소개함</li> <li>- 한국 ODA사업에 대한 지원절차가 시작될 수 있도록 하는 수원국 발송 공문절차와 사업개요서 작성법 등 절차적 내용에 대해 설명을 함</li> <li>- 세계수산대학(WFU) 추진개요를 소개하고 지지 당부</li> </ul>
2	<p>황선재 실장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립수산과학원(NIFS)에서 담당한 한국 오피서버 프로그램이 2019년도부터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FIRA)에서 실시함</li> <li>- 한국 오피서버의 양성 과정 및 기타 사항과 총허용어획량(TAC)의 감시의 중요성 강조</li> </ul>
3	<p>Teeta Erikate 수석자문관 (키리바시 수산해양자원개발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키리바시 측은 자국의 수입 상당부분은 수산자원으로부터 나오며, 키리바시에게 있어서 모니터링 등 감시능력의 향상과 IUU 대응문제는 상당히 중요한 문제로서 한국에서 국제오피서버 분야에서 인적 역량강화사업을 진행하여 준다면 상당한 도움이 될 것임을 예상함. 또한, 여성 오피서버의 수가 많아지길 기대함</li> <li>- 키리바시 발전계획(KV 20)을 설명하며, 키리바시 정부는 향후 다량어 조업의 중심지에서 한 단계 발전된 환적과 이에 연계된 산업시설 집약지 및 수산인프라 구축프로젝트를 내실 있게 발전시킬 계획임</li> </ul>
4	<p>Timothy James Park 오피서버프로그램 담당관 (태평양공동체사무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오피서버의 역할과 훈련 프로그램의 빠른 확장이 필요하며, 오피서버 인원수는 눈에 띄게 증가하였으나 관련 지원 및 관리 방안이 여전히 부족함</li> <li>- 태평양 섬 국가에서의 지역 오피서버 프로그램 및 각 국가 오피서버 프로그램의 형성, 특히 중서부태평양수산위원회(WCPFC) 설립 이후 태평양 지역 오피서버 프로그램(PIRFO)의 교육 내용 및 표준, 오피서버의 의무, 기술 및 변천을 설명</li> <li>- 다자성사업으로 국제오피서버교육훈련을 추진시 남태평양기준의 준수가 중요하고 기존 체계와 조화로운 프로그램 바람직함</li> </ul>
5	<p>김현주 박사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MW 해수온도차 발전설비의 제작 및 동해안에서 진행하고 있는 국내 실증 테스트를 완료 후, 2021년에는 키리바시 해역에 설치해 운영할 예정임</li> <li>- 키리바시 해수 이용과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한 수경재배 시스템 보급 운영 사업의 의미를 강조</li> </ul>
6	<p>Joeli Veitayaki 교수/ 한-남태평양 수산포럼 공동의장 (남태평양 대학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태평양 제도 지역의 해양수산 정책(PIROP) 발전계획과 목표는 키리바시에 적용 가능함을 언급하였으며, 타라와시는 매우 오염되어있기 때문에 PIROP의 원칙 3인 바다 생태계의 건강 유지를 강조</li> <li>- 키리바시가 해양 수산 분야에서 리더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며, 이를 위해 연구에 대한 투자, 고부가가치 제품 개발 등을 제시함</li> </ul>

□ 토론 주요내용

토론자		토론 주요 내용
1	Thomas Ruaia 수산부 국장 (키리바시 수산자원개발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현재 키리바시는 수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 다양한 프로젝트를 추진할 예정이며, 특히 키리바시 발전계획 20 (KV20)에서 가장 집중되고 있는 프로젝트는 환적 허브(transshipment hub)와 같은 인프라 건설 사업임</li> <li>- 타당성조사를 거쳐 지원을 하여 준다면 자국의 발전계획과 연동되어 매우 바람직할 것임</li> </ul>
2	Aketa Taanga 어업면허국 국장 (키리바시 수산자원개발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관리통제시스템(Management Control System, MCS) 역량 구축에 대한 방안 및 지원을 요청함. 또한, 불법 어업 부분에서 MCS가 제대로 이루어지기 어려움으로 옹서버 프로그램이 필수적임</li> <li>- 키리바시는 중서부태평양수산위원회(WCPFC)의 회원국으로서 국제기구의 남태평양도서국 옹서버교육기준인 PIRFO를 충족시켜야 하기에 SPC, FFA 등과 같이 한국이 옹서버를 양성하는 데 지원하여 준다면 좋은 아이디어일 것임. 따라서 SPC가 참여한 가운데 다자적으로 한국과 정식계약을 통해 추진해 나가길 희망하고, 이때 옹서버와 함께 트레이너 등에 대한 교육도 병행 실시한다면 바람직할 것임</li> </ul>
3	Ritang Ubaitoi 수산학장 (키리바시 선원학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국과의 협력을 통해 선원학교 옹서버 훈련이 지속 될 수 있기를 희망함. 또한, 시설과 자원은 있지만, 전문가가 없기에 한국이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지 요청함</li> </ul>
4	Tentau Teikake 수석수산자문관 (키리바시 선원학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향후 한국의 옹서버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키리바시의 청년들이 국내 외에서 실질적인 활동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하며, 이와 함께 기초적 한국어 및 한국문화 교육을 해줄 프로그램이 포함된다면 선상에서의 갈등 소지를 줄이고 상호 소통과 이해에 도움이 될 것임</li> </ul>
5	김현태 이사 (한국원양산업협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옹서버 프로그램이 자제 및 처벌보다는 사전 예방을 위해 운영되기를 바라며, 교육을 통해 원양 선사들과 소통 폭을 넓혀 상호 협력 프로그램이 갖추어지기를 희망함</li> <li>- 연안국 물자 지원 사업으로 키리바시에 가장 많은 예산을 지원하고 있으나 적은 예산 규모 때문에 한계가 있음. 물자 지원 사업이 ODA 사업과 연계하여 연안국의 지원이 활성화되기를 기대하며, 특히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의 사업 지원의 필요성과 예산 규모 확대에 대한 관심이 필요함</li> </ul>

6	김성철 과장 (신라교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최근 중서부 태평양 참치 어업 동향으로 동쪽 (키리바시, 투발루, 쿡제도, 토켈라우, 공해 수역 등) 지역 항구에 선박들의 입출항이 잦아지고 있음. 업계 입장에서 이러한 기회를 키리바시가 잘 활용하길 희망하며, KV20을 통해서 타라와 및 크리스마스 섬에 환적 허브의 설치 및 개발을 중장기적인 목표로 설정한 것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함.</li> <li>- 하지만 이 섬들이 모든 여건은 갖추었음에도 부대시설의 설립이 매우 필요한 상황임. 이에 관하여, 사후 관리 및 정비를 피지 또는 마이크로네시아에서도 진행하고 관련 시설이 갖추어 지기를 희망함.</li> </ul>
7	임소희 대리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원조성사업모델 및 맞춤형연안관리에 대하여 소개하고, ①어촌개발, ②양식지원, ③군서도서국의 청색성장모델개발 등의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음</li> <li>- 군서도서국의 청색성장모델개발 사업의 수원국은 지정되지 않았음. 예상 수원국으로는 피지, 키리바시, 파푸아뉴기니, 바하마, 모리셔스가 있으며 전반적인 내용 두 가지로 수산자원 증대와 유통이 있음</li> <li>- 혹시 키리바시에서 이 사업에 관심이 있다면 연근해 어업의 상업어종, 해양 환경 또는 지역에 대한 데이터를 제공해 주면 검토해볼 의향이 있으며, 수산자원조성은 정부의 지원과 지역민들의 협조가 매우 필요하며, ODA 사업을 위해 공문 전달의 중요성에 대하여 강조</li> </ul>
8	남태평양자문회의 결과 (4.15., 피지 난디 회의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적역량 강화) 남태평양 개발도상국의 경우 정부 공무원들의 역량 강화가 특히 필요함. 해양수산부의 물자지원사업도 인프라 구축사업으로 바뀌었으며, 조만간 역량강화 사업과 연계하는 수준으로 발전될 필요성이 있음</li> <li>- (사후관리강화) 물자지원 사업의 경우, 수원국이 기증받은 물자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으며, 관리할 수 있는 역량도 부족함. 따라서 사후관리에 대한 별도 예산을 확보하여 지원한 물자가 적절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상세한 검토가 필요함</li> <li>- (향후 ODA사업) 키리바시 내 해수온도차 발전시설 사업과 연계하여 어학당, 오피서버 교육장으로 활용될 수 있는 시설 건립에 대해 언급됨. 또한, 남태평양 ODA 사업 수요안 관련하여 사업리스트가 수산 쪽에 많이 치중되어 있는 경향이 있기에 수산뿐만 아니라 해양 분야 사업도 더욱 발굴되기를 기대함. 향후 사업 추진 시 주피지대한민국대사관과 적극적으로 협조할 것을 요청함.</li> </ul>

## □ 토론 결과 요약

좌장		토론 결과
1	조정희 본부장 (한국해양수산개발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국의 ODA 예산이 타선진국에 비하여 부족할 수 있지만, 이런 노력들을 통해서 키리바시와 진짜 파트너로 거듭나는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임</li> <li>- 2019년부터 상업적인 어항 개발 지원에서 개도국이 원하는 소규모 어항 개발 지원으로 정부정책 방향이 바뀌어 시행되고 있으며, 남태평양대학교(USP)와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이 공동 연구하는 주제로서 키리바시의 소규모 어항 타당성 조사 진행할 수 있을 것임</li> <li>- 키리바시와의 협력 방안으로 ①실제적인 협력사업 추진, ② 인적역량구축 또는 오피서버 프로그램 같은 단기간 협력 사업 진행 후 인프라 건설 같은 중장기 사업을 추진, ③키리바시 발전계획 20에 기여가능한 협력 사업 개발 등이 가능할 것임</li> </ul>
2	Joeli Veitayaki 교수/ 한-남태평양 수산포럼 공동의장 (남태평양 대학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KMI와 함께 2011년 구축한 한남태평양수산포럼(KOSOPFF)의 기반 위에서 피지 수바에서 주로 포럼을 개최하였으나, 키리바시는 피지 이외에서 열린 첫 국가로서 매우 중요한 세미나였으며, 이를 통해서 협력을 요청하는 과정과 협의하는 과정 자체가 중요함</li> <li>- 국제오피서버 등과 같은 교육프로그램을 통해서 인적 역량을 강화하는 사업을 키리바시 및 타 남태평양 지역에서 실시하는 것을 한국이 지원하여 준다면 향후 역내 국가에 많은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li> <li>- 한국의 ODA내용 절차를 소개하는 발표, 한국의 국제오피서버교육과정에 대한 소개도 유익하였으며, 수경재배를 위한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의 프로그램이 매우 좋았음</li> </ul>
3	Agnes David Yeeting 수산 차관 (키리바시 수산해양자원개발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단기간에 할 것과 장기적 과제로 나누어서 먼저 시급히 액션으로 나갈 것을 제안하고, 단기사업으로 오피서버 교육협력/수산관리등 인적역량강화 사업이 바람직하고, 지역오피서버 프로그램은 지역수산기구 기준을 충족시켜야 하니 지역수산기구와의 공동협업이 필요함을 제안함. 장기적 사업으로는 인프라구축, 소규모 및 상업용 어항건설 등 환적허브로 나가려는 KV20계획에 맞게 연동하여 추진이 바람직함</li> <li>- 제안사업에 대한 타당성조사를 하려한다면 협의 결과를 정리하여 가능한 범위 내에서 한국측에 요청공문을 준비하겠음</li> </ul>

## □ 포럼 결과

- 키리바시에서 열리는 최초의 한국 해양수산 국제세미나로서 세미나 종료시 까지 다수의 키리바시 수산부 공무원들이 참여하여 토론의 활성화에 기여함. 이를 통해 향후의 양국간 가시적 협력사업의 구체적 발굴이 가능하였음.
- 포럼에서 논의된 협력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면 우호적 관계를 기반으로 한 해외진출 희망기업의 투자환경개선 등 한국기업의 현지진출을 지원할 수 있으며 원양산업계 조업이익을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 남태평양 국가들의 식량안보 확보 등 지속가능한 발전(SDGs)에 기여함으로써 현 정부의 남태평양 태평양도서국 정책을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평가됨

## □ 향후 사업 추진방향

- 키리바시와의 협력사업은 단기와 중장기적 사업으로 나누어 추진하고, 무엇보다 사업의 구체화를 위한 액션으로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에 참가자들은 인식을 같이함
  - 따라서 단기사업으로 읍서버교육협력/수산관리/자원관리 등 인적 역량강화 사업이 바람직하고, 중장기적 사업으로는 수산인프라 구축사업으로 소규모 어항 및 상업용 어항건설 등 환적허브로 나가려는 키리바시정부 발전계획에 연동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함.
  - 또한 단기 사업으로 국제읍서버 교육훈련사업은 SPC 등 역내 국제기구와의 협업을 통한 다자성양자 사업으로 추진하고, 이러한 사업에는 전자읍서버프로그램, 한국어프로그램 등을 포함하여 실시하는 것도 필요하다는 것이 수원국 현지의 요구사항임
  - 우리 측은 참고자료로서 키리바시 수산부에 제안요청서 등 필요한 공문형식과 샘플을 이미 전달하였고, 현지 대한민국대사관도 상기 포럼 논의결과를 주지하고 있는바, 향후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의하여 후속 조치를 추진할 예정임.
  - 따라서 올 하반기에는 예비타당성조사 혹은 타당성조사를 국제기구인 SPC 및 키리바시 정부와 협업하여 추진하는 것이 필요할 것임

□ 한-키리바시 해양수산 전문가포럼 및 자문회의



포럼 참가자 단체 사진



발표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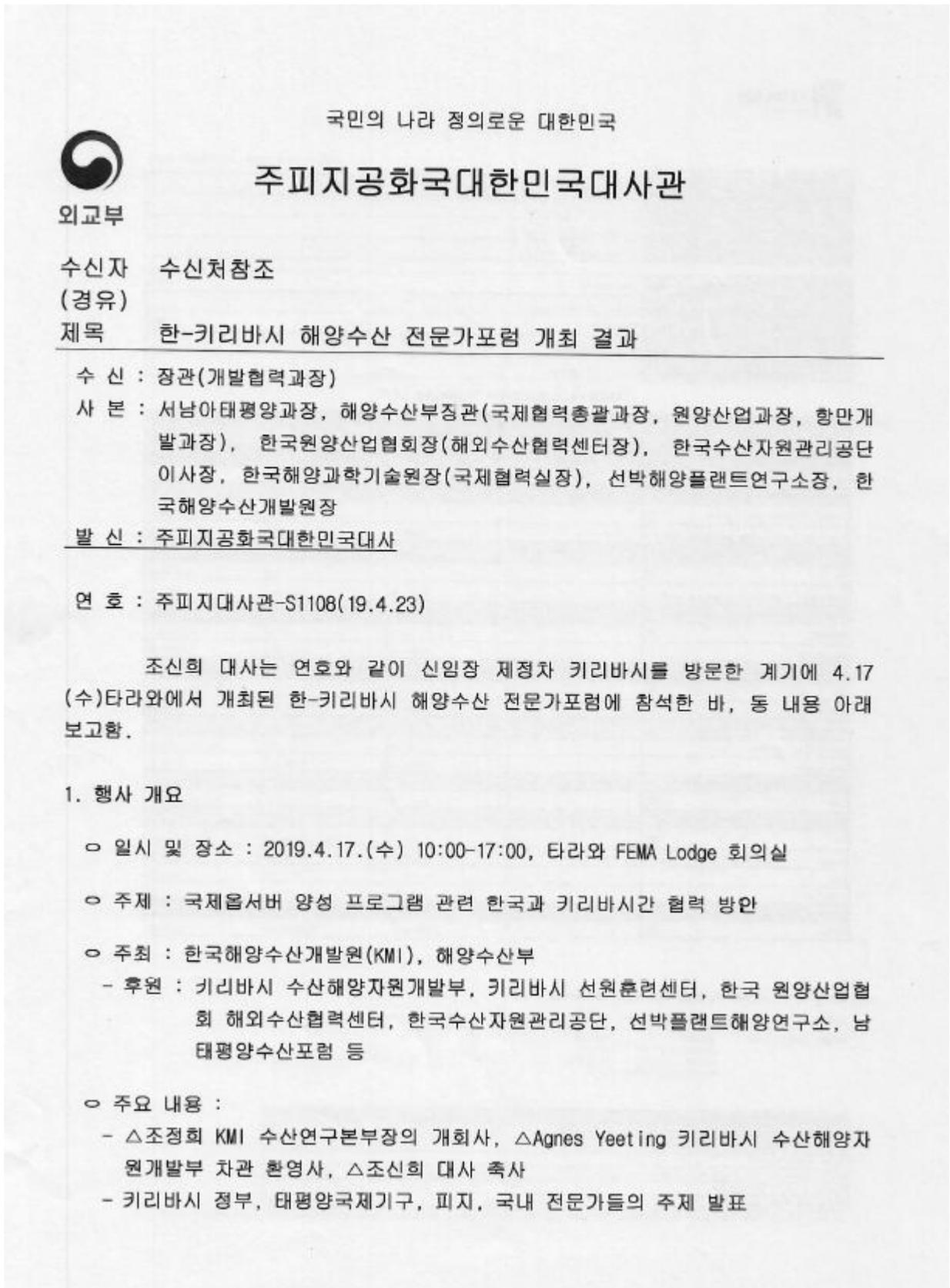


전문가 토론



남태평양 ODA 유관기관 자문회의

□ 참고자료



- 라운드테이블 토론
- 해양수산부와 한국원양산업협회의 對키리바시 물자전달식

## 2. 주요 내용

- 주제 발표는 △한국 해양수산 ODA 현황·추진방향과 KMI 국제협력사업(KMI 해양수산ODA센터 한덕훈 박사), △한국의 국제옵서버양성교육과 협력가능성(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 황선재 실장), △키리바시 해양수산업 현황 및 협력방안(키리바시수산부 Teeta Erikate 수석자문관), △태평양지역 옵서버프로그램: 지역표준, 역량과 협력(SPC Timothy Park 옵서버프로그램담당관), △키리바시의 지속가능 개발목표달성을 위한 해수온도차 발전시스템 활용(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김현주 박사), △태평양연안 해양수산연구협력 및 협업(Joeli Veitayaki USP교수, 한-남태평양수산포럼 공동의장)의 순으로 진행되었음.
  - 특히, KMI의 한국 해양수산 ODA 관련 발표 내용에 대해 솔로몬, 베트남 등 타 연안국에게 이루어진 ODA사업 내용에 대한 키리바시측 질의와 답변이 있었고, 한국 ODA사업에 대한 지원절차가 시작될 수 있도록 하는 수원국 발송 공문절차와 사업개요서 작성법 등 절차적 내용에 대한 질의 있었음.
  - 또한 Erikate 수석자문관은 키리바시 발전계획(KV 20)을 설명하면서 자신의 정부는 키리바시를 향후 다량어 조업의 중심지에서 한단계 발전된 환적과 이에 연계된 산업시설 집약지 및 수산인프라 구축프로젝트를 내실있게 발전시킬 계획임을 설명함.
- 조정희 KMI 본부장 및 Veitayaki USP교수의 공동좌장으로 진행된 라운드테이블 토론에서는 Thomas Ruaia 키리바시 수산국장, Aketa Tanga 수산부 어업허가국장, Ritang Ubaitoi 키리바시선원학교 수산학교수, Christan Mita 키리바시선원학교 부교장, 김현태 한국원양산업협회 이사, 김성철 신라산업 과장, 임소희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 대리의 참여 하에 의견교환이 이루어짐.
  - 국제옵서버프로그램이 사후 처벌보단 사전예방의 의미로 운영되길 희망한다는 업계의 의견이 제기됨.
  - 향후 개발될 국제옵서버 교육프로그램은 옵서버가 조업 현장을 이해하고 정부 및 선사와도 소통하며 받는 교육훈련이 될 필요성이 있음을 강조함.
  - 키리바시에서 열리는 본 포럼이 갖는 의미는 키리바시가 한국에게 있어 중요하다는 것을 방증하며, 한국에서 키리바시까지 와서 직접 목소리를 듣고 의견을

### 3. 관찰 및 평가

- 금번 포럼은 키리바시에서 열리는 최초의 한국 해양수산 국제세미나로서, 당초 예상한 참가자수보다 다수의 키리바시 수산부 공무원들이 참여하여 세미나 종료 시까지 끝까지 토론의 활성화에 기여하였으며, 이를 통해 향후 양국간 가시적 협력사업 발굴이 가능할 것으로 보임.
- 한-키리바시 양측은 협력사업을 단기간과 장기적 추진사업으로 나누어 먼저 사업의 구체화를 위한 액션으로 만들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하였음.
  - 즉, 단기사업으로 SPC 등 역내 국제기구와의 협업을 통한 다자성양자사업으로 국제옵서버 교육 협력을 추진하고, 이러한 사업에는 전자옵서버프로그램, 한국어프로그램 등을 포함하여 실시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 또한 장기적 협력사업으로는 소규모어항 건설지원사업 등 수산인프라 구축지원사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이외에도 수산관리프로그램, 자원관리지원 등 사업을 추진한다면 수원국의 SDGs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됨.
  - 상기와 같이 발굴된 협력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면, 향후 우리 원양산업계의 조업이익 보호에 기여할 수 있으며, 투자환경개선 등 우리 기업의 현지진출도 지원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됨. 아울러,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남태평양 국가들의 식량안보 확보 등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끝.



# 외교부



이코브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2019년 한-키리바시 해양수산 전문가 포럼 안내 및 자문회의 참석 요청

수신 : 주피지대사

사본 : 서남아태평양과장, 해양수산부장관(국제협력총괄과장), 한국국제협력단 이사장, 한국해양수산개발원장

발신 : 외교부장관(개발협력과장)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은 별첨 공문을 통해 2019년 한-키리바시 해양수산 전문가 포럼 및 자문회의를 개최한다고 알려오며 귀 관의 참석을 요청해온바, 가능한 범위 내에서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한국해양수산개발원 공문 및 첨부물. 끝.

## 외교부장관



수신자 주피지대사, 해양수산부장관(국제협력총괄과장), 서남아태평양과장, 한국국제협력단이사장, 한국해양수산개발원장

의무행정관 박세영      개발협력과장 장용구      전결 05/21

참조자

시행 개발협력과-2578 (2019-03-21)      접수  
우 03172 서울특별시 종로구 사직로8길 60, (도림동, 정부서울청사별관) / <http://www.mofa.go.kr>  
전화 02-2100-8352      전송 02-2100-8359 / [sypark13@mofa.go.kr](mailto:sypark13@mofa.go.kr) / 비공개  
일자리가 성장이고 복지입니다



## 주피지공화국대한민국대사관



수 신 수신자 참조  
(경 유)

제 목 남태평양 ODA 유관기관 자문회의 개최

수 신 : 장관(개발협력과장)

사 본 : 서남아태평양과장, 해양수산부장관(국제협력총괄과장), 한국국제협력단이사장, 한국해양수산개발원장, 한국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장, 한국해양과학기술원장

발 신 : 주피지공화국대한민국대사

대 호 : 개발협력과-2578(2019.3.21.)

대호, 당관은 4.15(월) 당지에서 남태평양 도서국 대상 ODA 사업 경험을 공유하고 신규사업 발굴을 위해 표제회의를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과 공동개최한 바, 결과 아래 보고함.

### 1. 회의 개요

○ 일시 및 장소: 2019.4.15(월) 14:00~16:00, 소피텔(난디, 피지)

○ 참석자:

- 한국: 조정희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 본부장, 김현태 한국원양산업협회(KOFA) 이사, 김현주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KRISO) 연구원, 황선재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FIRA) 실장, 임소희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FIRA) 대리
- 주재국: 당관 정인상 참사관 및 김지윤 전문직행정원, 김지희 KOICA 피지사 무소장, 방장완 한국해양과학기술원(KIOST) 피지사무소장, 김종태 주피지 명예해양수산관 등

### 2. 핵심요지

- 표제회의는 조정희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 본부장 사회로 진행된 가운데 각 기관별 태평양 도서국 지역의 ODA 활동 및 경험을 공유하고, 태평양 도서국별 해양수산 ODA 사업 수요 조사안을 검토하는 한편, 향후 해양수산 ODA 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논의함.

- 참석자들은 태평양 도서국 대상 우리나라의 해양수산 ODA 규모가 점차 증가하고 있으나 중국, 일본 등 주요 공여국 대비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며, 해양수산 ODA를 다수의 부처 및 기관이 이행하고 있는 것을 감안할 때, 전략적인 해양수산 ODA 사업 발굴 및 이행이 필요하다는 것에 공감을 표함.
- 이를 위해, 내부적으로는 재외공관을 포함한 부처 및 기관간 소통과 협업을 강화하여 ODA 사업이 효과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며, 사업 내용에 있어서는 ODA 사업 실행 이후 후속사업 관리를 강화해 나가야 할뿐만 아니라 태평양 도서국의 열악한 인적 인프라를 감안, 인적역량 강화에 집중하는 것이 향후 해양수산 ODA가 나아갈 방향으로 공통적으로 언급함.

### 3. 상세내용

#### 가. 당관 ODA 활동 브리핑 (정인상 참사관)

- 최근 재외공관과 ODA 시행기관간 사전협의 및 협업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가운데 금일 회의를 KMI와 공동으로 개최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하며, 당관의 주요 ODA 활동은 ①소규모 무상원조 사업 ②각 부처에서 추진하는 신규 ODA 사업 검토 ③ 재외공관 ODA 사업 모니터링 업무 등이 있음.
  - 소규모 무상원조: 매년 최대 20만불 한도내에서 관할 태평양도서국 6개 국가 (피지, 키리바시, 투발루, 마셜제도, FSM, 나우루)에 물자 또는 현금 지원
  - 신규 ODA 사업 검토: 매년 4, 5월 무상원조 관계기관 협의회에서 차년도 ODA 사업을 검토하는데 이 과정에서 공관 의견을 참고
  - ODA 사업 모니터링: 현장 ODA 사업 총괄기관으로서 모니터링 시행 과정에서 시행기관과 정보 공유 및 협업 유도 등 사업 효과성을 제고하는 목적이 있으며 모니터링 결과는 ODA 사업 심의 및 감사원, 국회자료로 활용
- 소규모 무상원조 사업의 주요 애로사항은 사업 제안서 및 증빙서류(견적서, 집행확인서 등) 제출이 지연되는 등, 태평양 도서국의 소극적인 태도 및 행정절차 지연 관행 등으로 인해 적기에 사업을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것임.
- 2020년도 사업 검토 결과, 키리바시에 다소 집중된 경향이 보이며, 일부 사

업의 경우 제안서 및 수원국 ODA 총괄기관의 공문 미첨부로 수원국의 사업추진 의지 확인이 어렵거나 관심도가 낮은 것으로 파악되는 사례도 있는 바, 수원국의 사업의지를 확인할 수 있는 문건을 꼭 첨부해줄 것을 당부함.

- ODA 모니터링은 수원국 관계기관 면담(수원국의 ODA 사업 평가 청취 및 만족도 등 조사), 현장 방문(실질적인 사업 결과 확인을 통해 객관성 담보를 위해 현장 방문), 공관자체 평가(여타 사업 연계 가능성, 사업 수행기관과 관련된 문제점 등을 파악) 위주로 시행하고 있음.

#### 나. 남태평양 ODA 유관기관 주요 활동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조정희 본부장)

- 금일 회의는 4.17(수) 한-키리바시 해양수산 전문가 포럼에 앞서, 각 기관별 남태평양 지역의 활동을 공유하고 ODA에 대한 아이디어를 논의하기 위해 주피지대사관과 공동으로 개최하는 것으로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이 설립한 ODA 수산협력센터는 조만간 법적 기반을 갖춘 전문기관으로 지정 받을 예정임.
- 금번 전문가 포럼을 키리바시에서 직접 개최하는 이유는 타 공여국(일본, 중국 등)에 비해 적은 규모의 예산으로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주제인 '옴저버'에 집중하여 한국의 공여 의지를 적극적으로 알리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서임.
-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은 '한-남태평양 수산포럼'을 2011년 발족하여 매년 태평양 도서국에서 개최하고 있으며, 매년 약 12억 규모의 ODA 사업을 시행 중

(한국원양산업협회, 김현태 이사)

- 원양산업협회내 협력센터에서 원양물자 지원사업을 2006년부터 개시하고 있으며 지금은 3~4배 정도 증가하여 2014년부터는 연간 11억원 규모로 시행 중
- 우리나라의 경제규모를 감안하면 전체 규모가 더욱 증가할 필요가 있으나 예산확보가 쉽지 않은 실정이며, 키리바시가 우리 원양 참치산업의 주요 국가인 바, 현재 20% 이상을 키리바시에 투입 중
- 원양산업이 국민 수산물 공급의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는 바, 원양산업은 한국 국민의 먹거리, 식량안보에도 매우 중요함. 현재 태평양 도서국이 원양

산업의 50%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런 물량이 향후에도 계속 유지되려면 태평양 도서국을 국가 차원에서 관리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봄.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김현주 연구원)

- 해양수산부 R&D 사업으로 2016~2021년 키리바시에 1MW급 해수온도차 발전시설 실증사업을 하고 있으며, 해수온도차 발전시설을 키리바시 정부에 전달한 이후에는 ODA 사업이 될 것으로 생각함.
  - 금년내 해수온도차 발전시설 해상실험을 동해에서 실시하고, 예산상황에 따라 내년 키리바시에 시설 관련 인프라 건설 계획
- ODA 사업으로는 코이카 지원으로 2016년 지속가능 해수이용 아카데미를 설립하여 공무원, 학생 대상으로 해수를 활용한 물, 해조류 재배 등을 교육시켰으며 2018~2021년 해수부 ODA 사업으로 수경재배 사업을 진행 중임.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방장완 소장)

- 국가 R&D 사업으로 피지 및 통가에 해저열수광상 등의 해저광물 개발 사업을 진행중으로 피지는 2012년부터, 통가는 2008년부터 추진되어 왔음.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은 탐사까지 진행하고, 탐사이후의 개발권은 민간기업체나 정부에서 공기업 또는 컨소시엄 구성하여 개발할 계획으로 개발되었을 때 가치는 7조 정도 될 것으로 추산됨.
- 태평양 도서국의 해저광물자원 개발 관련, EU는 6년간 440만 유로를 투입하여 관련 법규 제정 및 역량개발을 지원하였으며 근래에는 국제해저기구와 UN경제사회국이 태평양 도서국 공무원 대상 광물에 대한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하고 있음. 개발권 신청시 주요 평가 기준 중 하나가 관련 역량강화, 지역사회 기여도인 바, 다른 부처의 ODA 사업과 연계해서 활용하는 방안이 있으면 좋을 것 같음.

(KOICA 피지사무소, 김지희 소장)

- 태평양 12개 도서국을 관할하고 있으며, 피지를 중점으로 솔로몬제도, 키리바시, 투발루에 사업 진행중임. 기후변화와 보건의 주요 분야이며 해양수산 분야 사업은 아직 없음. 부처간 협업이 강조되고 있는 가운데 금일 회의에 참석하게 되어 뜻 깊게 생각함.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 황선재 실장)

-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FIRA) 자원관리실은 해외수산협력센터와 국제오피저버

운영 사업에 대하여 협력 중으로 금년도 후반기에는 훈련이 FIRA에 넘어 오게 되면, 국제 읍저버 43명 관리 및 운영 업무를 맡고 있음. 이번 기회를 통해 키리바시 읍저버 사업에 관련해서 많이 관여할 것으로 보임.  
다. 태평양 도서국 해양수산 ODA 향후 방향 논의

(사후관리 강화)

- 물자지원 사업의 경우, 수원국이 기존 물자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고 있고, 관리할 수 있는 역량도 부족한 바, 사후관리에 대한 별도 예산을 확보하여 지원한 물자가 적절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 컴퓨터, 제빙기, 냉장 컨테이너 등이 태평양 도서국에 빈번하게 지원되었는데, 국내 냉동사나 전기사가 없어서 관리가 되지 않는 실정
- KOICA의 경우, 총 사업비의 10%, 시행 이후 7년 이내에 사후관리 사업을 진행할 수 있으며, 주로 사업기자재 보완, 건축의 하자보수 등이 주 내용임. 사후관리 예산의 경우, 사업 예산명을 별도로 하여 예산을 배정받고 있음.
- ODA 수산협력센터에서 종합적으로 ODA 사업을 관리하고 점검하는 업무를 하는 것도 고려해볼 수 있을 것임.

(역량강화)

- 개발도상국의 경우 정부 공무원들의 역량강화가 특히 필요한 바, 해양수산부의 물자지원 사업도 인프라 구축사업으로 바뀌었는데 조만간 역량강화 사업과 연계하는 수준으로 발전될 필요성이 있음.
- 연수사업도 기관별로 산발적으로 시행하고 있으며, 연수기관도 수행기관이 해수부, 해수부 산하기관, 개인 연구소, 대학교 등으로 나뉘어져 있는 바, 현지 실정에 적합한 연수가 이루어지도록 전략적으로 기관들끼리 모여 교재내용 및 연수과정 등의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향후 ODA 사업 관련)

- 외교부-유엔식량농업기구-해수부 공동사업으로 ①자율관리어업(어촌어항공단) ②스마트양식(부경대-KMI) ③태평양 도서국 대상 수산자원 조성시범단지사업 (FAO-FIRA) 추진 예정임.
  - 수산자원 조성단지 시범사업은 수산자원 증대가 목적으로 FAO와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으나 예산과 대상국은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로 추진

시는 KOICA, 대사관 의견을 적극 반영할 것임.

- 키리바시내 한국어 교육 훈련 수요 관련, 한국어 교사 파견 방안, 현지인을 한국에서 교육시키는 방안 등이 논의되었으며, 해수온도차 발전시설 사업과 연계하여 어학당, 읍저버 교육장으로 활용될 수 있는 시설 건립에 대해서도 언급됨.
- 남태평양 ODA 사업 수요안 관련, 사업리스트가 수산쪽에 많이 치중되어 있는 경향이 보이는 바, 수산뿐만 아니라 해양 분야 사업도 더욱 발굴이 되면 좋을 것 같음.

붙임: 행사사진. 끝.

주피지공화국대한민국대사



수신자 개발협력과장,서남아태평양과장,해양수산부장관(국제협력총괄과장),한국국제협력단이사장,한국해양수산개발원장,한국해양과학기술원장,한국해양과학기술원부설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장

협조자

시행 주피지공화국대한민국대사관-1081 접수  
(2019.04.18)  
우 /  
전화 전송 / /